

지상진료실

외상환자의

구내방사선사진 검사

서울치대 치과방사선학교실

최 순 철

안면부에 외상을 받은 환자를 진단할 때 임상적검사와 함께 방사선학적 검사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외상환자의 방사선사진 촬영시 유의해야할 점은 양질의 방사선사진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매수의 방사선사진을 촬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매의 방사선사진을 촬영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이익은 몇 매의 방사선사진 촬영시 환자에게 더해질 수 있는 방사선 위해작용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방사선사진 촬영의 예를 들면 가장 많은 타격이 가해지는 상악전치부의 검사시 필요한 방사선사진은 3매의 치근단방사선사진과 1매의 교합사진이다. 3매의 치근단방사선

사진중 1매는 2개의 상악중절치를, 2매는 좌측과 우측의 중절치와 측절치를 중심으로 촬영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치아가 2매의 방사선사진에서 수평각이 변화된 상태로 나타나므로 하나의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게 된다.

또한 교합사진을 필수적으로 촬영해야 하는 바 치근단방사선사진에 비해 광범위한 부위를 관찰할 수 있고 수직각이 증가하므로 특히 치근파절과 lateral luxation된 경우에 유용하다. 왜냐하면 많은 치근파절의 경우 파절선이 통상의 치근단방사선사진촬영시 요구되는 수직각을 사용할 경우에 잘 관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림 1,2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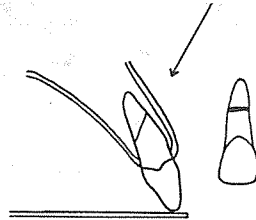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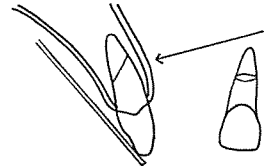


그림1. a. 치근파절시 교합사진 촬영



b. 치근파절시 치근단 방사선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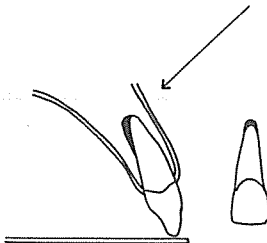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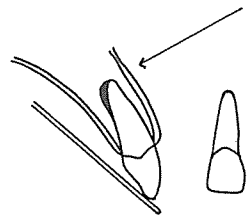


그림2. a. lateral luxation시 교합사진 촬영



b. lateral luxation시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